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과 과제

- 2014~2020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

Trends and Task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2014~2020

이 용 재 (Yong-Jae Lee)*
김 지 은 (Ji-Eun Kim)**

목 차

1. 서 론
2. 선행연구
3. 도서관경영의 연구동향
4. 요약 및 결론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도서관경영 연구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에 수행된 선행연구를 이은 후속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4종의 학회지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게재된 문헌정보학 논문 중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 323편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선행연구에서 도서관경영 논문 편수가 연간 36건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연간 46건으로 조사되어 양적인 증가를 보였다. 세부영역별 연구동향 분석에서, '경영일반', '인사관리', '측정과 평가'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진 반면, 선행연구에서 조사된 것처럼 '도서관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 연구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research trends of library management and suggesting future tasks of this area in Korea. This is a study following the previous study which was done in 2014.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323 papers of library management area among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apers which have been published from 2014 to 2020 at the four academic journals of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46 papers in library management had been produced annually. The amount of papers in library management has increased, compared to 36 papers annually published which were checked at the previous study. The analysis on the research trends of sub-fields of library management showed that high research performance has been done at the sub-fields like 'general manag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measurement and evaluation'. However, there has still been less performance in the sub-fields like 'marketing', 'organization management', 'budget management', which was also shown at the previous study.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 도서관경영, 연구동향, 도서관경영 세부영역, 연구과제
LIS Research, Library Management, Research Trends, Sub Field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Tasks

---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lyj5384@pusan.ac.kr / ISNI 0000 0004 6472 8447) (제1저자, 교신저자)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대학원(wlsnl0121@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일자: 2021년 2월 10일 최초심사일자: 2021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21년 2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1): 209-230, 2021. http://dx.doi.org/10.4275/KSLIS.2021.55.1.209

1. 서 론

인류 역사 동안 도서관은 계속 발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현재에도 도서관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도서관은 우리 일상 속의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 들어와 있다. 21세기로 들어와 국내 도서관의 패러다임은 크게 바뀌고 있다. 즉, 도서관의 운영이 정숙한 열람 공간 위주의 운영에서 다양한 서비스・정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위주의 운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도서관의 역할 변화와 위상 강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도서관의 운영은 여러 가지 대내외 기회와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국면과 경로의 도서관 경영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운영과 예산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를 안고 있다. 또한 도서관은 스터디카페, 무인카페, 백화점 문화센터와 같은 외부 영리 조직들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연구의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도서관경영 분야는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공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도서관경영에 관한 연구를 다룬 논문 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손정표(2003)는 1967년부터 2002년까지의 학술지에 수록된 도서관경영에 관한 논문이 전체 연구의 21.8%에 이른다고 하였고, 송정숙(2010)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석・박사학위 논문의 20.9%가 도서관경영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서관경영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시적인 고찰이 부족하다. 윤희윤(2011)은 "도서관경영 연구의 학문적 성과 및 실용적 가치에 대한 학계의 성찰과 체계적 평가는 거의 없으며, 학술연구의 결과를 수시로 간추려 경영실무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고, 이용재, 김경덕(2014)도 "도서관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 도서관경영 연구에서 세부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도서관경영 분야에서 세부 분야별로 연구가 많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윤희윤은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에서 최초로 도서관경영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여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학술논문 2,567편을 도서관경영 세부영역별로 나누었고, 이용재, 김경덕은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 359편을 세부영역별로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는 도서관 현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의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향후 도서관경영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재, 김경덕(2014)의 연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도서관경영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이어, 2014년 이후 최근 도서관경영 연구동향을 세부영역별로 살펴 그 학문적 성과를 성찰하고 지난 연구에서 지적됐던 과제들의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2. 선행연구

2.1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는 문헌정보학 전반의 연구동향을 파악한 논문 중에서 도서관경영을 포함하는 연구로, 〈표 1〉과 같다. 이는 다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과 석・박사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길자(1995)는 1992년까지 34년간 학위논문 521편을 분석하고, 도서관경영 분야가 전체의 20.5%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였고, 손정표(2003)는 2002년까지 1,695편의 학위논문을 연구한 결과 도서관경영에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정진식(2001), 이명희(2002), 손정표(2003), 윤희윤(2011)은 학술논문에서도 도서관경영 영역이 문헌정보학 중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행연구를 보면 세부분야를 적게는 7가지에서 많게는 24가지까지 나누고 있다. 세부분야는 〈표 2〉에서와 같이 모두 도서관경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경영 분야에 집중한 연구동향 분석은 윤희윤(2011)의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라는 논문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도서관경영에 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지적했지만, 연구자가 밝혔듯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로 대상기간을 국한했다는 한계가 있다.

2.2 도서관경영 연구 동향 분석

이용재, 김경덕(2014)은 한국 도서관경영의

〈표 1〉 문헌정보학 연구동향에 대한 선행연구 비교

연구자	논문제목	대상	대상 기간	도서관 경영 비중
김길자 (1995)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학위논문 521편	1959-1992	20.5% (2위)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학술논문 339편	1996-2000	11.3% (4위)
이명희 (2002)	내용분석법에 의한 문헌정보학 학술지 연구논문분석	학술논문 597편	1997-2001	8.71% (2위)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학술논문 2,868편	1957-2002	3위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학위논문 1,695편	1959-2002	29.0% (1위)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학위논문 1,439편	2001-2010	21% (3위)
윤희윤 (2011)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	학술논문 2,567편	2001-2010	21.8%

〈표 2〉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연구에서 구분한 문헌정보학 세부분야

연구자	세부분야
김길자(1995)	기초이론, 자료조직, 자료연구, 도서관활동, 도서관경영 및 행정, 정보학, 기타
정진식(2001)	자료조직, 도서관경영, 참고정보서비스, 문헌정보학일반, 연구방법론, 정보생성, 정보인식, 정보처리, 정보시스템, 서지학
이명희(2002)	문헌정보학일반, 도서관사,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식경영
손정표(2003)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공공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손정표(2003)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공공봉사,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송정숙(2010)	문헌정보학 기초, 도서관경영, 자료조직, 장서개발, 정보서비스, 서지학, 도서 및 도서관사, 정보학, 기록학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분야의 4종 학회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게재된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 359편을 분석했다. 학술논문만으로 대상을 제한한 이유로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연구한 연구자들의 지적 생산물일 뿐만 아니라, 출판되기 전 심사를 거치므로 질적으로 보장된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동향분석에서는 대상 논문들의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여 도서관경영 세부영역별로 분류했다. 또 저자가 학술논문에 부여한 키워드도 같이 조사했다. 도서관경영 세부영역 분류는 도서관경영론 교재와 윤희윤의 선행연구 등을 종합하여 '정책과 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축과 시설관리', '마케팅', '측정과 평가' 등 8개 영역을 도출했다. 세부영역 분류에서 한 논문이 중복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 논문 주제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분류했다.

그 결과 〈표 3〉처럼 경영일반 분야의 연구가 86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측정과 평가에서 78편, 인사관리 76편, 건축과 시설관리 44편, 그리고 정책과 제도에서 40편의 순이었다. 반면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는 각각 전체의 5%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에서도 논문수가 많은 만큼 경영일반은 거의 300개였고, 측정과 평가, 인사관리도 200개를 넘었다. 반면 논문수가 적었던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는 키워드 역시 적은 수가 추출됐다.

전체적으로 경영일반, 인사관리, 측정과 평가

〈표 3〉 이용재, 김경덕(2014)의 도서관경영 연구동향 분석 결과

세부영역	경영일반	측정과 평가	인사관리	건축과 시설관리	정책과 제도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집계	86 (24.0%)	78 (21.7%)	76 (21.2%)	44 (12.3%)	40 (11.1%)	17 (4.7%)	9 (2.5%)	9 (2.5%)
키워드	299	204	243	115	135	57	30	44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 연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는 경영학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이며, 국내 도서관 현장의 각종 이슈와 난관을 개선하는 데 연구와 방안 제시가 절실한 분야이다. 이에 이용재, 김경덕은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세부분야에서 연구가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도서관경영의 연구동향

3.1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 분류

3.1.1 분류방법

이 연구는 최근 도서관경영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기 위해 선행연구인 이용재, 김경덕(2014)에 이은 후속 연구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이어 2014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최근 7년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등 문헌정보학 분야 학회지 4종에 실린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세부영역별로 분류하고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류방법으로 연구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을 추출하여 도서관경영 분야 연구논문들을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이후 세부영역별로 범주화하였다. 키워드 분석은 저자가 학술논문에 부여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했고, 세부영역 분류에서 중복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두 가지 이상의 주제로 분류될 경우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여 가장 잘 표현되는 주제 영역에 배정하였다.

3.1.2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

도서관경영 연구의 결과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재, 김경덕(2014)은 도서관경영의 주교재로 쓰이는 『도서관경영론』(개정판 2011),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8th ed, 2012), 그리고 윤희윤(2011)의 선행연구를 종합 비교했다.

윤희윤은 "도서관경영은 경영학을 모태로 성립됐고, 도서관경영의 하위항목도 경영학의 기능적 분류체계를 차용하거나 원용하여 구성됐다"면서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을 8개 영역으로 제시했다.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은 서론, 기획, 조직화, 인적 자원, 지도, 조정, 21세기 관리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도서관경영론』은 도서관의 관리환경 변화, 도서관의 경영관리 이론, 도서관의 역할 분석, 도서관의 경영자원, 경영계획, 예산편성과 관리, 조직의 형성과 관리, 인력자원의 계획과 관리, 지휘의 원리와 응용, 통제와 평가, 도서관경영의 미래 등 11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용재, 김경덕은 윤희윤이 제시한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이 두 개론서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윤희윤의 연구에서 체계화한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을 참고하고, 제반 연구자의 세부 연구대상과 키워드를 정리하여 〈표 4〉와 같이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을 8개 분야로 제시했다.

〈표 4〉 이용재, 김경덕 연구(2014)에서의 도서관경영 8개 세부영역과 각 연구주제

세부영역	연구주제
정책과 제도	도서관정책, 정보정책, 행정체계, 법령과 기준, 저작권, 지적 자유, 납본 제도, 사회자본, 지적자본 등
경영일반	경영사상, 경영이론, 경영요소, 경영전략, 경영계획, 전략적 계획, 경영모형, 경영기법, 운영실태, 관종별 경영, 아웃소싱, 위탁경영, 지식관리, 협력시스템 등
조직관리	조직화, 조직구조, 조직유형, 조직개편, 위원회제도, 팀제, 학습조직, 조직커뮤니케이션 등
인사관리	채용과 선발, 교육훈련, 정원관리, 직무분석, 인사고과, 직무만족도, 경력개발, 핵심역량, 동기부여, 사서직제, 자격제도, 전문직, 관장, 리더십, 전문성, 직업윤리, 자원봉사자 등
예산관리	예산배정, 예산기법, 자료구입비, 재원확충, 학술지 가격, 컨소시엄 비용 등
건축과 시설관리	건축계획, 위치선정, 리모델링, 건립의 경제성 분석, BTL 사업, 가구와 설비, 정보기술, 서고관리 등
마케팅	홍보활동, 이용촉진, 시장세분화, 마케팅전략, 고객관리, 고객관계관리, 고객만족도 등
측정과 평가	운영평가, 경영평가, 효율성 평가, 시스템 평가 등

따라서 이 연구 역시 이용재, 김경덕의 선행연구(2014)에서 제시된 '정책과 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축과 시설관리', '마케팅', '측정과 평가' 등 8개 영역을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으로 삼아 수행되었다.

3.2 도서관경영의 연구동향 개관

선행연구에 이어 도서관경영의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 3사분기까지 약 7년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분야 4종의 학회지에 실린 학술논문을 전수조사하였다. 대상 학회지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로 4종이며, 전수조사 결과 대상기간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은 총 1,601편에 이르렀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수록 논문이 466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수록 논문 436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수록 논문 364편,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수록 논문 335편 순이었다.

이 논문들을 대상으로 제목, 초록,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본문도 참조하여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을 추려낸 결과 총 323편의 논문이 해당됐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수록 논문 106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수록 논문 98편,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수록 논문 81편,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수록 논문 38편 순이었다(〈표 5〉 참조).

〈표 5〉 2014~2020 4종 학술지 논문 및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 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총합
논문 수	436	466	335	364	1,601
도서관경영	98	106	38	81	323

각 학술지의 연도별 학술논문 게재수를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4분기가 빠진 2020년을 제외하면 2015년에 261건으로 가장 많은 학술논문이 저술됐다. 그러나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19년에는 216건으로 4년 만에 45건이 감소했다. 특히,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서의 학술논문 수가 2015년 77건에서 2017년 50건까지 떨어지면서 다른 학회지에 비해 증감 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도별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 게재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대체로 매년 40편이 넘는 논문이 저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들어 〈한국비블리아학회지〉에 24편의 학술논문이 게재되면서, 2018년에 총 57편이 저술되어 처음으로 50편을 넘어섰다.

또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 323편이 생산되었는데, 이는 연간 46편에 해당한다. 이용재, 김경덕의 선행연구(2014)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이 359편이었으므로 연간 36편이 생산된 것으로 보면, 최근 7년간 연간 10편 정도로 도서관경영 분야의 학술논문이 양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별 연구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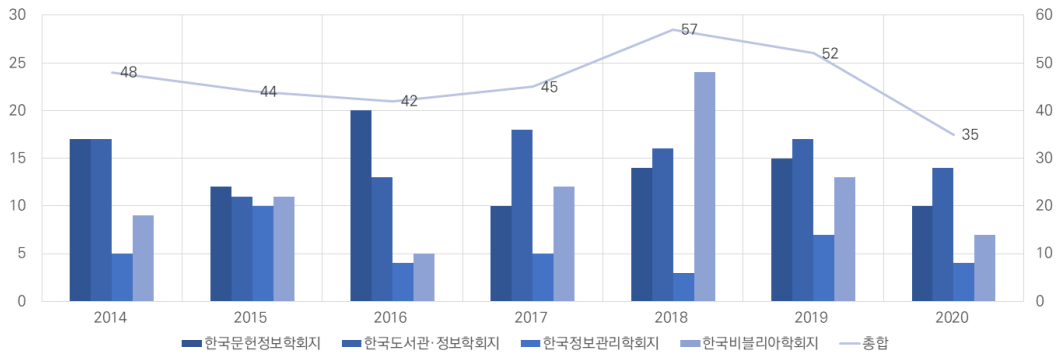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도서관경영 분야의 논문 323편을 앞서 정한 8개의 세부영역별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경영일반이 73편으로 가장 많았고, 정책과제도 66편, 인사관리 63편, 측정과 평가 57

〈표 6〉 연도별 · 학회지별 학술논문 게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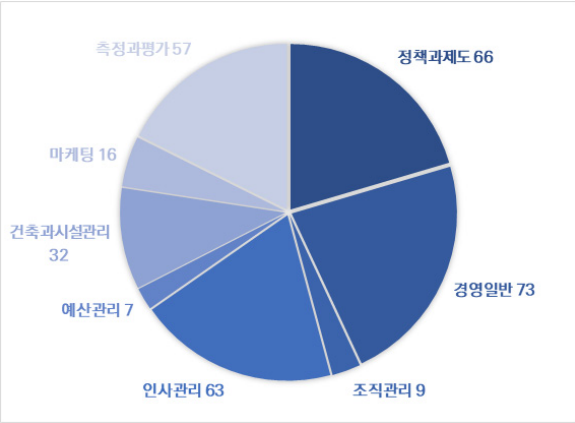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총합
2014	75	71	50	58	254
2015	77	74	55	55	261
2016	76	72	53	51	252
2017	50	69	51	58	228
2018	54	63	44	58	219
2019	55	71	45	45	216
2020	49	46	37	39	171

〈표 7〉 연도별 · 학술지별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 게재 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총합
2014	17	17	5	9	48
2015	12	11	10	11	44
2016	20	13	4	5	42
2017	10	18	5	12	45
2018	14	16	3	24	57
2019	15	17	7	13	52
2020	10	14	4	7	35



〈그림 1〉 연도별 · 학술지별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 게재 수



〈그림 2〉 8개 세부영역별 분류 결과

편, 건축과 시설관리 32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마케팅 16편, 조직관리 9편, 예산관리 7편으로 이 세 영역은 10편 내외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그림 2〉 참조).

이를 이용재, 김경덕의 선행연구(2014)와 비교해보면 〈표 8〉과 같이 전체 도서관경영 연구논문 중에서 정책과 제도 분야의 비중이 11.1%에서 20.4%로 크게 늘었고, 측정과 평가에서는 4.1%, 건축과 시설관리 2.4%, 인사관리 1.7%, 경영일반 분야에서는 1.6% 등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의 양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경영일반과 인사관리에서 여전히 연구가 활발하고, 정책과 제도, 측정과 평가, 그리고 건축과 시설관리 분야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는 선행연구와 같이 조사 대상 기간에도 여전히 연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는 경영학에서도 중시되는

〈표 8〉 2004~2013년 선행연구와 2014~2020년 연구동향 분석에서 도서관경영 학술논문 세부분야별 현황

구분	합계	정책・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축・시설관리	마케팅	측정・평가
2004~2013	359	40	86	9	76	9	44	17	78
		11.1%	24.0%	2.5%	21.2%	2.5%	12.3%	4.7%	21.7%
2014~2020	323	66	73	9	63	7	32	16	57
		20.4%	22.6%	2.8%	19.5%	2.2%	9.9%	4.9%	17.6%

분야임에도 문헌정보학 연구에서 관심이 저조하고 시간이 흘러도 세부영역에서 이 분야들의 연구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서관경영 분야 학술논문에서 저자가 부여한 키워드를 추출해 세부분야별로 정리를 한 결과 〈표 9〉와 같이 총 1,622개의 키워드를 추출했다. 세부분야별로 보면 경영일반 342건, 정책・제도 341건, 측정・평가 313건, 인사관리 311건의 순으로 상위권 4개 분야가 모두 300건이 넘는 키워드를 생산했다. 또 건축・시설관리 분야에서도 151건의 키워드가 추출됐다. 반면 마케팅 영역에서는 85건, 조직관리 47건, 예산관리 32건으로 논문수가 적은 하위권 분야는 키워드 생산 역시 적게 나타났다.

3.3.1 정책과 제도

도서관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는 학술논문 66편이 출판됐고 341개의 키워드가 추출되면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로 확인됐다. 키워드는 '공공도서관'이 19건, '도서관 정책'이 11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외에도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사회자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정보격차, 정보취약계층과 같은 키워드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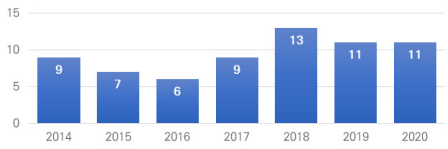
이 세부영역에서는 대체로 거시적 관점의 연구들이 눈에 띄었다. 변우열(2017)과 류현숙(2017)은 한국과 일본의 도서관법을 비교했고, 조용완(2018)은 여섯 번의 지방선거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납본제도,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았으며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이 없는 고아저작물을 활용하는 방안(정경희 2017)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반대로 도서관으로 범위를 좁혀 내부 규정에 대해 짚어보는 연구도 있었다. 윤희윤(2018)은 공공도서관 음식물 반입제한에 대한 인식조사를 연구했고, 김수경, 이태안, 이운우(2019)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했다.

〈표 9〉 2014~2020년 도서관경영 세부분야별 키워드 수

키워드	정책・제도	경영일반	조직관리	인사관리	예산관리	건축・시설관리	마케팅	측정・평가
1,622	341	342	47	311	32	151	85	313

〈표 10〉 '정책과 제도'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정책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 진흥법	도서관법
19	11	6	5	5
사회자본	도서관	저작권	사서교사	정보격차
5	4	4	4	4
정보취약 계층	고아저작물	대량 디지털화	작은도서관	조례
4	3	3	3	3



〈그림 3〉 '정책과 제도' 분야 연도별 논문 수

사회적 약자와 이들의 정보격차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김선호(2015)는 성적소수자들의 인권과 도서관서비스를 살폈고, 윤혜영(2018)은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정책 수립시의 고려사항을 짚었다. 이제환(2019)은 소수자의 정보빈곤에 대한 도서관의 책무를 연구했고, 안인자, 노영희, 장로사(2018)는 정보불평등 대상별 도서관서비스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진단하고 저소득계층의 정보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신은자(2020)는 플랜S 정책에 대비한 오픈액세스 출판의 과제를, 허고은, 김기영(2015)은 도서정가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대안정책 의제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생활SOC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패러다임 속에 유휴자원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을 고찰하는 연구(박성우 2019)가 나오는 등 '생활SOC'가 정책과 제도, 건축과 시설관리 등의 영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제도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연구과제로는 '사서의 전문성 및 위상 강화를 위한 사서자격 제도 확립', '도서관의 사회적 토대와 위상 강화를 위한 국가 도서관 정책의 방향 수립', '선진국 수준의 사서 및 사서교사 배치를 위한 제도 마련', '국민들에게 도서관혜택을 골고루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제도 정립 및 정책 개발' 등이다.

3.3.2 경영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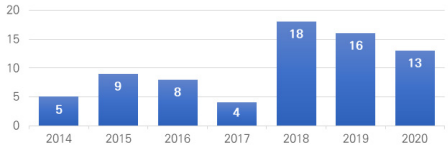
도서관 경영일반 영역은 선행연구에 이어 이번에도 가장 많은 논문 수와 키워드를 기록하며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임을 입증했다. 경영일반을 주제로 한 논문은 총 73편이었고, 342개의 키워드 중에서는 '공공도서관'이 25회로 가장 빈도수가 높았으며, 주로 운영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았던 가운데 특화도서관이나 실행공동체와 같은 키워드도 나타났다.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신영지, 노영희(2019)는 병원도서관, 장보성(2019)은 특수학교 학교도서관, 성은정, 홍재현(2015)과 장윤금 외(2018)는 병영도서관, 박옥남, 차성종, 김신영(2018)은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관종의 운영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이 분야 연구를 확대했다.

조사대상 기간 동안에 수행된 위탁경영이나 아웃소싱과 관련한 연구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최유진, 차미경(2018)의 다케오시립도서관 사례를 통한 일본 서점기업의 공공도서관

〈표 11〉 '경영일반'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사서	특화도서관
25	5	5	5	5
도서관정책	도서관경영	병원도서관	운영실태	운영현황
5	4	3	3	3
도서관	실행공동체	의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정책	도서관운영
3	3	3	3	3



〈그림 4〉 '경영일반' 분야 연도별 논문 수

위탁운영에 관한 연구 정도가 있었다. 반면 구본진, 이연옥, 장덕현(2015)과 윤희윤, 김신영(2016), 박성우(2018) 등 도서관 협력네트워크와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대한 연구가 늘었다. 2017년 대선 전후로는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급부상하면서 한희정 외(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도서관 구축전략에 대해, 강주연 외(2018)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서관과 사서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들어 생활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는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노영희, 김윤정(2019)은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 분석에 대해, 신영지, 노영희(2020)는 공공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구성 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도서관 운영 방식이 비대면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속속 등장하였다. 노영희, 장로사(2020)는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했고, 김성원(2020)은 감염병 상황에서 도서관 서비스 지속가능성에 대해, 또 박태연, 오효정(2020)은 미디어 이슈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연구했다.

다만, '경영기법', '경영전략' 관련 연구 논문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경영이론이나 응용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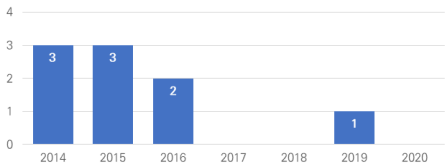
3.3.3 조직관리

조직관리 영역에서는 주로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 조직헌신성과 같은 조직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박자현, 김기영(2014)은 사서의 조직몰입과 목표인식에 대해, 유평수, 최홍식(2016)은 사서의 헌신성과 조직시민행동에 대해 연구했고 정대근(2016)은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또, 차성종, 김수경(2019)은 김해시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직진단 및 운영개선안을 마련했다.

현대사회에서 조직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의 목표가 일치되는 집합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직관리의 중요성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을 넘어 다양한 조직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도서관경영 연구 중에서 조직관리 분야는 지난 선행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동향에서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

〈표 12〉 '조직관리'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대학도서관	도서관사서	조직효과	조직몰입	대학도서관 경영
3	2	2	2	1
동기부여	목표설정	목표인식	임파워먼트	조직시민 행동
1	1	1	1	1
조직헌신성	헌신성	고몰입 인적 자원관리	김해시 공공도서관	도서관정책
1	1	1	1	1



〈그림 5〉 '조직관리' 분야 연도별 논문 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서관경영 연구 중에서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경영 중 조직관리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로는 '사서 주도성', '학습조직', '주제서비스 조직', '조직개발' 등이다.

3.3.4 인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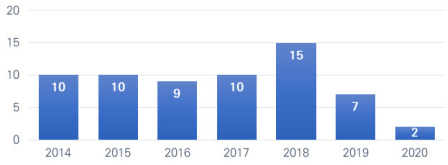
도서관 인사관리 분야에서는 63편의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고, 키워드도 311개가 추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13회로 키워드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직무만족, 주제전문사서, 직무분석, 사서계속교육 등 사서 전문성의 인식과 역할 등을 중점으로 연구가 수행됐다.

2019년부터는 연구가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직무만족이나 사서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았고, 사서교사에 대한 연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서는 노동조, 김수진(2017), 임성관(2019) 등이 사서직의 직무탈진, 직무소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 눈에 띈다. 근래 '번아웃(Burnout)'이란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여 체력이 떨어지고 의욕을 상실할 정도로 지쳐버리는 현상은 그동안 치열한 경쟁사회의 산물로만 여겨졌으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감정노동자들 역시 이러한 직무소진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사서직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돌봄의 필요성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종성(2014)과 류제희, 노영희(2015)

〈표 13〉 '인사관리'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현황

공공도서관	사서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대학도서관
13	13	9	8	6
주제전문 사서	직무만족	계속교육	사서교육	직무분석
6	5	4	4	4
사서계속 교육	장애인 서비스	재교육	주제전문 서비스	감성지능
3	3	3	3	2



〈그림 6〉 '인사관리' 분야 연도별 논문 수

는 비정규직 사서의 고용실태와 처우개선 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였고, 정종기(2015)와 조재인, 이지원(2016) 등은 예비사서와 인턴십 운영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인사관리 분야에서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연구주제는 '사서의 전문성 향상', '직무분석', '사서 및 사서교사 역할 및 위상 강화', '사서직 인력충원', '주제사서 양성', '사서계속교육' 등이다.

3.3.5 예산관리

도서관 예산관리 분야는 도서관경영에서 연구가 가장 저조한 분야로 나타났다. 학술논문은 7편에 불과했고, 키워드도 32건에 그쳤다. 〈한국정보관리학회지〉에서는 예산 관련 논문이 전혀 없었다. 키워드는 '공공도서관'이 3회, '전자저널'이 2회 등장했고, 나머지는 모두 1회 정도였다. 다만,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운영현황을 비교분석(김재훈, 이응봉 2016)하거나 전자저널 원문복사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연구(김환민 2016)가 수행된 것을 보면 현장에서는 전자저널 관련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자료구입에 관한 연구(강은영 2016)가 있었고, 도서관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연구(노영희 2014; 박현우 2018)도 진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예산관리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여전히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산관리는 도서관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도서관 예산관리 영역은 연구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요망되는 분야이다.

예산관리 분야에서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는 '예산과 계획의 연계', '도서관 서비스의 비용편익 분석', '오픈액서스 운동과 전자저널 예산 절감', '도서관 모금 및 기부문화', '관종별 도서관 예산 현황 분석', '모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 예산 비중 추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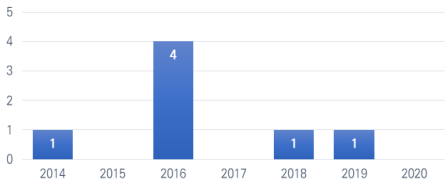
3.3.6 건축과 시설관리

도서관 건축과 시설관리의 영역에서는 학술논문 32편이 학회지에 게재되었고, 키워드도 151개로 나타나 꾸준히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키워드에서는 '공공도서관'이 12회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경제적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조건부가치측정법 등 건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타났다.

공동보존서고 설립 타당성(윤희윤 외 2014;

〈표 14〉 '예산관리'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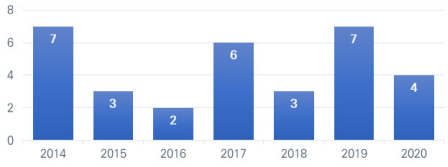
공공도서관	전자저널	도서정가제	자료구입	지역서점
3	2	1	1	1
출판문화 산업진흥법	공공도서관 예산	기부문화	기업기부	기업기부 사례
1	1	1	1	1
도서관 컨소시엄	라이선스 계약	복제	사회공헌 활동	상호대차형 원문복사
1	1	1	1	1



〈그림 7〉 '예산관리' 분야 연도별 논문 수

〈표 15〉 '건축과 시설관리'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경제적 타당성	비용편익 분석	공동보존 서고
12	5	5	5	4
조건부가치 측정법	지역대표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계획	메이커 스페이스
3	3	3	3	2
보존서고	부산대표 도서관	자료보존	지불의 사금액	대응서비스
2	2	2	2	2



〈그림 8〉 '건축과 시설관리' 분야 연도별 논문 수

강은영, 장덕현 2018)과 부산, 대구 등 지역대표 도서관 건립(유재우, 김신영 2015),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노지현, 이은주, 조용완 2017) 등이 다수 수행되었다. 또 소음 저감과 조도 개선(윤희윤 2017), 공기질 측정(이재원 2019), 서고 유도 사인물 설치(박상근, 이재원 2019) 등 도서관 시설에 대한 섬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형 과제를 가지고 수행된 연구들도 나타났다. 최근에는 폐교를 활용한 리모델링 연구(노영희, 노지윤 2019)나 메이커스페이스 등의 창의학습공간 조성에 대한 연구(오영옥, 김혜진 2019)가 증가하였다.

건축과 시설관리 분야에서 더욱 필요한 연구로는 '관종별 도서관건축', '도서관 공간 구성', '도서관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등이다.

3.3.7 도서관마케팅

도서관 마케팅 영역 역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실적이 16편에 그쳐 적은 편에 속했다. 85개의 키워드 중에는 '도서관마케팅'이 5회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연구', '소셜미디어', '도서관 유튜브채널', '브랜딩전략'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도서관마케팅 활성화를 시도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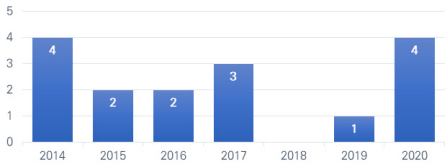
실제로 한종엽, 이승민, 서만덕(2014)은 해양과학도서관 사례를 통해 전문도서관의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시했고, 임정훈(2020)은 SNS를 활용한 학교도서관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수연, 남영준(2017)은 공공도서관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활용방안을, 정옥경, 이미선(2017)은 팟캐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각각 연구했다.

또한 도서관마케팅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이성신 2014)나 관계마케팅 분야의 핵심 개념인 전환비용을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충성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연구(유병희, 박소연 2016) 등이 등장하면서 도서관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토대가 축적되었다. 여기에 도서관마케팅 프로모션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김미설, 장우권 2015)도 눈길을 끌었다. 또, 대학도서관 근로학생의 구전(口傳) 마케팅 효과(최윤희, 김기영 2014), 도서관 주간표어에 관한 연구(임성관 2020) 등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다.

도서관마케팅 분야는 영리조직과의 불가피한 경쟁 속에서도 도서관의 가치와 공적 토대를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

〈표 16〉 '도서관마케팅'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도서관 마케팅	공공도서관	소셜네트 워크서비스	소셜미디어	학교도서관
5	4	2	2	2
SNS	SNS마케팅	가치순환	경쟁사분석	계량정보학
1	1	1	1	1
고객가치 분석	고객세분화 분석	공공도서관 서비스	관계마케팅	관계지속 의도
1	1	1	1	1



〈그림 9〉 '도서관마케팅' 분야 연도별 논문 수

문에 연구자와 학술논문의 수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도 이에 대해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적극 파악하고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더욱 이끌 수 있도록 도서관마케팅 분야에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되었다. 앞으로 도서관마케팅 분야에서 필요한 연구로는 '관종별 도서관 마케팅 전략', '도서관 마케팅 이론 개발', '뉴노멀시대의 도서관마케팅', '도서관마케팅 사례', '도서관 브랜드', '도서관 가치증진을 위한 도서관마케팅' 등이다.

3.3.8 측정과 평가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측정과 평가 영역에서는 57편의 논문과 313개의 키워드가 도출되면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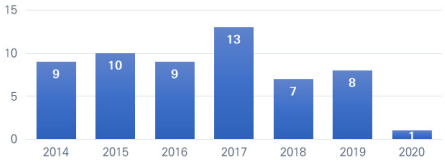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공도서관'이 13회, '서비스품질'이 11회로 빈번히 등장했다. 또 '대학도서관', '이용자만족도', '평가지표'와 같은 키워드도 다수 나타났고, '라이브퀄', '품질평가', 'PCSI', '균형성과표' 등 다양한 키워드가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어 세분화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도서관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라이브퀄, QFD, AHP 등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동원했는데, 가령 LibQUAL+를 적용해 성은혜, 김수정(2015)은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품질평가를, 김보일, 김선호(2017)는 공공도서관 노인서비스 품질평가를 수행했고, 임정훈, 이병기(2019)는 AHP를 활용해 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의 우선순위를 분석했다.

또한 다양한 지표 개발이 시도되었는데, 노영희(2017)는 도서관의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와 녹색화 수준 평가를, 권나현, 이정연, 표순희(2018)는 PCSI 선행요인 모형에 기반하여 도서관 조직성과 평가 방법론을 개발했고, 한승희(2017)는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품질평가모형을, 박진호(2018)는 도서관의 오픈 데이터 품질측정모델을 개발했다. 그 중에서는 '체르노프 페이스'를 사용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에 대해 분석하거나(김영석 2016), 스마트폰 무선신호를 이용해 공공도서관 이용행태를 분석(박성재 2019)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도 있었다. 또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품질평가나 측정지표 개발 및 개선방안(배경재 2016; 노영희, 장로사 2019)에 대해 연구가 수행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확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17〉 '측정과 평가' 분야 상위 15개 키워드 현황

공공도서관	서비스품질	대학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평가지표
13	11	8	7	7
라이브퀄	품질평가	가치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4	4	3	3	3
PCSI	경제적가치	고객만족도	공공도서관 운영	균형성과표
2	2	2	2	2



〈그림 10〉 '측정과 평가' 분야 연도별 논문 수

측정과 평가 분야에서 앞으로도 필요한 연구로는 '도서관운영평가 기준 및 지표 개선', '도서관혜택의 경제적 가치 제시를 통한 도서관서비스 평가 방안', '고객범주별 이용자서비스 품질평가' 등이다.

4. 요약 및 결론

현대 사회에서 도서관을 경영하는 것은 경쟁사회에서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토대를 지켜내고 도서관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난제이면서 중요한 일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공적인 가치를 지켜내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하는 도서관 현장에 대해 도서관경영 연구는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발전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2014)에 이어,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최근 7년간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별로 진행된 연구의 경향과 연구주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문헌정보학 전체 분야 중에서 도서관경영 분야의 학술논문이 2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7년간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에 게재된 전체 1,601편의 학술논문 중 도서관경영 분야는 323편으로 연간 46편의 수준을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서관경영 영역에서 생산된 학술논문이 10년간 359건으로 연간 36편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최근 기간(2014~2020) 동안 매년 약 10편의 학술논문이 더 생산된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경영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선행연구에 이어 도서관경영 분야를 세부분야로 분류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도서관경영 안에서도 정책과 제도, 경영일반, 인사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 마케팅, 건축과 시설관리, 측정과 평가 등 여러 연구 분야가 존재하고, 연구결과물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 분야의 비중이 특정 세부분야에 편중된 현상은 여전하기 때문에 도서관경영의 세부분야별로 골고루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경영일반, 인사관리, 측정과 평가, 건축과 시설관리 분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연구에서도 꾸준히 상위를 차지하며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 분야 연구는 지

난 조사 대상 기간(2004~2013) 동안 하위에 머물러 있었고, 최근 7년(2014~2020) 동안에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조직관리, 예산관리는 경영학에서도 중시되는 분야이며, 도서관경영에서는 이러한 세부분야에서 도서관 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발전 방안이 제시되는 것이 요망된다. 특히, 조직관리 분야와 예산관리 분야는 7년간 논문이 9편과 7편에 그치면서 연 1편이 나올까 말까 한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생활SOC, 메이커 스페이스, 복합문화공간, 코로나19 등 시대의 조류에 발맞춘 연구들이 등장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찾는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 4종을 전수조사하고 도서관경영 분야 논문을 추출하여 1차 분류를 하고, 이를 다시 도서관경영의 세부영역별로 2차 분류를 진행한 후, 해당 논문들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초록과 내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 학술지 4종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그 외 학술논문, 석・박사 학위논문, 세미나 자료 등은 제외되어 연구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분석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거나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도서관경영 분야의 연구에서도 세부영역별로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강미희, 김정현. 2014.『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연구동향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4): 457-482.

[2] 곽동철, 이용재. 2020.『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 서울: 청람.

[3] 김길자. 1995.『우리나라 석・박사 학위논문에 나타난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분석』.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4] 김미설, 장우권. 2015. 도서관마케팅 프로모션의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2(1): 171-204.

[5] 김영석. 2017. 체르노프 페이스를 사용한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1): 271-287.

[6] 김재훈, 이응봉. 2016. 해외 주요 도서관 컨소시엄의 운영현황 비교・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91-511.

[7] 김환민. 2016. 전자저널의 상호대차형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4): 143-164.
[8] 노영희. 2015. 녹색도서관 인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2(3): 99-130.
[9] 노영희, 장로사. 2020. 코로나19 대응조치에 관한 공공도서관 사서인식 조사연구.『정보관리학회지』, 37(3): 203-220.
[10] 노지현, 이은주, 조용완. 2017.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타당성 연구: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09-233.
[11] 노지윤, 노영희. 2020. 도서관 유튜브(YouTube) 채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7(3): 1-24.
[12] 문경민, 1993.『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3] 문방희. 2018. K-MOOC 시대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1): 193-214.
[14] 박상근, 이재원. 2019. 도서관 서고 유도 Sign System 현장 사례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2): 339-359.
[15] 박성우. 2020. 도시재생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앵커로서의 공공도서관 고찰: 유휴자원 재활용을 통한 공공도서관 건립 사례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2): 133-157.
[16] 박자현, 김기영. 2014. 대학도서관 사서의 조직몰입과 목표인식에 대한 연구: 질적 접근.『정보관리학회지』, 31(1): 251-275.
[17] 변회균, 조현양. 2014. 학교도서관 사서의 SNS활용과 업무성과의 영향요인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71-90.
[18] 성은혜, 김수정. 2015. LibQUAL+를 적용한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품질 평가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2(4): 29-53.
[19]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연구동향 분석: 1957-2002.『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9-32.
[20] 손정표. 2003. 한국의 문헌정보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1959-2002.『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4): 21-42.
[21] 송정숙. 2010. 한국 문헌정보학의 연구현황 분석.『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1(4): 334-353.
[22] 윤희윤. 2011.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성과와 한계.『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25-44.
[23] 이재원. 2019. 대학도서관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조사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635-658.
[24] 이용재, 김경덕. 2014. 한국 도서관경영 연구의 동향: 2004~2013 학술논문을 중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25-50.

[25] 이용재. 2015. 대학도서관 전략적 계획의 평가에 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551-574.
[26] 이제환. 2019. 소수자의 정보빈곤과 도서관의 책무.『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4): 1-31.
[27] 이혜영. 2015. 한국에서의 대학도서관 연구동향.『정보관리학회지』, 32(2): 153-165.
[28] 이혜영. 2017. 국내에서의 공공도서관 연구동향.『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3): 27-43.
[29] 임성관. 2019. 학교도서관 사서직의 소진 경험에 관한 연구.『한국비블리아학회지』, 30(3): 171-193.
[30] 장덕현, 구본진. 2018.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125-142.
[31] 정대근. 2016.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이 대학도서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359-386.
[32] 정진식. 2001. 한국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1996~2000.『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3): 55-78.
[33] 조찬식, 최항석. 2014. 도서관 관리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직원들의 주관적 직무성과와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399-414.
[34] 최윤희, 김기영. 2014. 대학도서관의 근로운영방식에 따른 근로학생 구전(口傳)마케팅 효과의 실증적 연구.『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17-235.
[35] 한승희. 2017.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품질 평가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정보관리학회지』, 34(4): 273-292.
[36] Moran, Barbara B., Stueart, Robert D. and Morner, Claudia J. 2013.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8th ed.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1] Kang, Mi-Hee and Kim, Jeong-Hyen. 2014.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457-482.
[2] Kwack, Dong Chul and Lee, Yong Jae. 2020.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 Management.* Seoul: Chungram.
[3] Kim, Kil-ja. 1995. *Analysis of research tendency on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 Masters' and Doctoral dissertations in Korea*. M.A.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4] Kim, Mi-Seol and Chang, Woo-Kwon. 2015.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Library Marketing Promo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1):

171-204.

[5] Kim, Young-Seok. 2017. "Analysis of Public Library Operations and Uses of 16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of Korea by Using the Chernoff Face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1): 271-287.

[6] Kim, Jay Hoon and Lee, Eung-Bong. 2016. "Library Consortia Characteristics Comparative Analysis around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3): 491-511.

[7] Kim, Hwan-min. 2016. "Analysis of License Agreements of e-Journal Packages for Interlibrary Lo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4): 143-164.

[8] Noh, Younghee. 2015. "A Study on Developing the Evaluation Items for the Green Libraries Cer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3): 99-130.

[9] Noh, Younghee and Chang, Rosa. 2020. "A Study on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about the Response to the COVID-1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203-220.

[10] Rho, Jee-Hyun, Lee, Eun-Ju and Cho, Yon-Wan. 2017. "A Feasibility Study of Public Libraries Remodeling: Focusing on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09-233.

[11] Ro, Ji-Yoon and Noh, Younghee. 2020. "A Study on Methods for Activating Libraries' YouTube Chann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1-24.

[12] Moon, Kyeong-Min. 1993. *An Analysis of the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M.A.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3] Moon, Bang-Hee. 2018. "A Study on the Roles of Library in the Era of K-MOO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93-214.

[14] Park, Sang-Kun and Lee, Jae-Won. 2019. "A Study on a Sign System in a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339-359.

[15] Park, Seong-Woo. 2020. "Public Libraries as a Social Anchor in Urban Regeneration Paradigm: A Case Study of Constructing Public Libraries through Renovating Under-used Spac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33-157.

[16] Park, Jahyun and Kim, Giyeong. 2014. "A Stud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Goal Perception of University Librarians: A Qualitative Approac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251-275.

[17] Byeon, Hoi-Kyun and Cho, Hyun-Yang. 2014. "A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the Task

Performance with Utilizing SNS by School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71-90.

[18] Seong, EunHye and Kim, Soojung. 2015. "A Study on the Service Quality Evaluation of Children's Libraries Using LibQU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29-53.

[19]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7~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3): 9-32.

[20] Sohn, Jung-Pyo. 2003.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Master's & Doctor's Dissertations in the Field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59~2002."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4): 21-42.

[21] Song, Jung-Sook. 2010.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from 2001 to 2010."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1(4): 334-353.

[22] Yoon, Hee-Yoon. 2011. "Outcomes and Limitations of the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3): 25-44.

[23] Lee, Jae-Won. 2019.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Investigation of Air Quality in a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635-658.

[24] Lee, Yong Jae and Kim, Kyoung Doc. 2014. "A Study on Trends of Library Management Research in Korea: Focused on Academic Papers 2004~201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4): 25-50.

[25] Lee, Yong-Jae. 2015.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Strategic Plan of Academic Libraries: Focused on the Cases of National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4): 551-574.

[26] Lee, Jae-Whoan. 2019. "Information Poverty of Minor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ibrarie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4): 1-31.

[27] Rhee, HeyYoung. 2015. "A Trend of Research Topics on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2): 153-165.

[28] Rhee, HeyYoung. 2017. "Research Trends on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3): 27-43.

[29] Lim, Seong-Gwan. 2019. "A Study of School Librarian Experience of Burnout: Focused on Contract Teacher Librarians and Contingen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3): 171-193.

[30] Chang, Durk Hyun and Koo, Bon Jin. 2018. "The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A Children's Library Construction: The Case of C Innovatio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2): 125-142.

[31] Jeong, Dae-Keun. 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High Commit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2): 359-386.

[32] Chung, Jin-Sik. 2001.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1996~200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55-78.

[33] Cho, Chan-Sik and Choi, Hang-Sok. 2014. "The Influence of the Library Manager's Communication Ability on Job Performance and Role-Conflict of the Library Staf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399-414.

[34] Choi, Yoonhee and Kim, Giyeong. 2014. "An Empirical Study on the Word-of-mouth Marketing Effect by Managing Student Employee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17-235.

[35] Han, Seunghee. 2017. "A Study on Developing a Service Quality Evaluation Model for Library Mobile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4): 273-292.